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⑫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1)

소임자 임무는 수행 뒷바라지

선원총림(선종사원)의 조직과 직제는 당송 시기 조정의 직제와 율장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조정)의 직제와 조직을 많이 모방했는데, 그것은 총림의 중요한 소임인 6지사(六知事)와 6두수(六頭首)를 동서(東序)·서서(西序), 또는 동반(東班)·서반(西班)이라고 한 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선종사원의 최고 통솔자, 최고 책임자는 주지 곧 방장이다. 주지는 총림의 운영에서부터 수행승들에 대한 참선 지도 등 교유까지 모두 담당한다. 주지 밑에는 12개의 중요한 소임이 있는데, 이것이 6지사(六知事, 일을 아는 6명)와 6두수(六頭首, 6명의 우두머리)이다. 6지사의 수장은 도사(都寺, 감원)이고 6두수의 수장은 수좌인데 이들이 주지를 보필하여 선원을 운영, 관리하고 수행승들을 통솔한다.

6지사는 여섯 명의 지사로서, 도사(都寺, 감원)·감사(監事)·부사(副寺)·유나(維那)·전좌(典座)·직세(直歲)이다. 6두수는 수좌(首座)·서기(書記, 書記)·지장(知藏, 藏主)·지객(知客)·지욕(知浴, 浴主)·지전(知殿)이다. 어느 곳에는 지전 대신 고두(庫頭)를 맡히기도 하나 <칙수백장정규> 양서장에는 지전이 들어가 있다. 고두는 사무, 행정 쪽 소임으로 후대에는 부사라고 했는데, 한 때 6두수에 포함되기도 했다.

조정 직제·율장 바탕해 조직 구성

지사(知事)는 주사(主事)·집사(執事)와 같은 말로서 본래 그 명칭은 당송시대 중앙 관아의 우두머리 다음 가는 벼슬인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지주밀원사(知樞密院事) 등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벼슬들을 줄여서 흔히 '지사(知事)'라고 했는데, 선원 총림의 중요한 직책인 지사도 여기서 따온 말이다. 그리고 두수(頭首)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6지사를 동서(東序)·동반(東班)이라고 불렀고, 6두수를 서서(西序)·서반(西班)이라고 불렀는데, 이 호칭도 당시 정부조직의 두 축인 양반(兩班) 즉 동반(東班, 東序)과 서반(西班, 西序)에서 차용한 말이다. 동반은 문반(文班)이고 서반은 무반(武班)인데, 문반이 무반보다는 상위였다. 후대에는 동반과 서반을 가리키는 양반(兩班)이라는 말이 신분 구분을 뜻하는 양반과 상놈의 말로 변천하였다. 개념이나 역할상에서 조정의 동서(동반, 문반) 서서(서반, 무반)와 총림의 동서, 서서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6지사와 6두수 밑에는 다시 이들의 업무를 돕는 종두(鐘頭)·수두(水頭)·화두(火頭)·채두(菜頭) 등 소임이 있는데, 이들을 소두수(小頭首) 또는 소직(小職)이라고 했다. 소두수 밑에는 사미승과 행자(동행)가 있고 또 정인(淨人)이라고 하여 부목(負木) 등 일꾼들이 있었다.

중국의 선원총림의 직제는 조정의 문무 양반제를 모방하여 지사와 두수의 양서(兩序, 동서와 서서)·양반제(兩班制)를 실시한 것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총림의 조직은 하나의 소(小)정부라고 할 수 있다.

주지(방장)를 보좌하여 총림을 운영, 관리하는 요직으로서 6지사와 6두수 제도가 정형화 된 것은 송대 중기 즉 남송 무렵(1127년부터 남송이 시작됨)이다. 남송 이전 북송 시대에는 6지사가 아닌 4지사(直歲)만 있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총림의 업무와 기구가 비대해 지고 특히 감원의 업무가 증대하자 이 소임을 도사(都寺)·감사(監事)·부사(副寺)로 분할한 것이다. 송대 초기 무렵에 편찬된(1103년) 장로종색의 <선원정규>에는 4지사만 열거되어 있는 반면, 원대 후기에 편찬(1338년)된 <칙수백장정규>에는 6지사가 열거되고 있다.

선원총림에서 도사(감원)·유나 등 6지사는 주사(主事), 행정직으로서 선원의 사무 일체와 살림을 총괄하는 소임이고, 수좌·서기 등 6두수는 수행, 교유를 총괄하는 소임인데, 이 가운데서도 도사(감원)와 수좌가 6지사, 6두수의 우두머리이다. 지사와 두수는 흔히 우리나라 사찰에서 말하는 사판(6지사)·이판(6두수)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6지사가 좌선·참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당에서 거의 대중들과 똑같이 참선했으므로 우리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

6지사와 6두수는 승당(선당) 내에서도 앉는 자리 즉 좌선하는 자리가 각각 다르다. 대혜선사(1089-1163)가 주지로 있던 항주 경산사 대승당인 해회당(海會堂) 내부도를 보면, 우선 주지는 승당의 전당(前堂, 승당 내에서도 입구쪽을 전당이라고 하고 안쪽을 후당이라고 함. 그리고 이 전체를 내당이라고 함) 통로 우측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서 좌선한다. 정식 자리인 장련상(좌선, 취침상)에는 배정된 자리가 없다. 주지는 직무상 출입이 용이한 쪽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6두수 가운데 수좌·서기(서장)·장주(藏主, 지장)는 내당 오른쪽 장련상에 앉아서 좌선하고, 지객·지욕·지전은 승당의 외당 좌측에서, 그리고 도사·감사·유나·부사·전좌·직세 등 6지사와 방장지사 등은 승당의 외당 우측에서 좌선한다. 6지사와 6두수 등 소임을 맡은 사람들은 주로 입구 쪽이고 수행승들은 안쪽에서 좌선한다.

또 법당 내에서 법문을 들을 때도 서는 자리가 각각 다르다. 6지사는 동서(東序, 東班)이므로 동쪽(좌측)에 도열하고, 6두수는 서서(西序, 西班)이므로 서쪽(우측)에 도열하여 설법을 듣는다. 불전에서 예불 할 때도 동서로 구분하고, 법회나 기타 행사 때에도 동서로 구분하여 앉는다. 이 역시 조정에서 조회(朝會) 때 동반은 동쪽(왼쪽), 서반은 서쪽에 서서 조회했는데, 그대로 본 딴 것이다.

방장이 6지사·6두수 임명

지난 여름 중국 천둥사에 갔을 때에 승당 아래에 있는 재당(齋堂, 식당)을 보게 되었는데, 동서(東序)·서서(西序)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식당에서도 구분했으며, 이런 구분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지사와 6두수의 임명권자는 물론 총림의 최고 어른인 주지(방장)이다. 그러나 주지라고 해서 임의



2008년 동안거에 맞춰 개원한 월정사 만월선원 동상방.

세번 물어 이의없어야 소임자 임명

이판-사판 때론 알력관계... 임기는 1년 방장 보필해 6지사·6두수가 선원 운영

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임자들의 추천을 받은 뒤에 반드시 대중들에게 적부(適否) 여부, 찬반 여부를 세 번 물어 다음 이의 없으면 비로소 임명한다. 대체로 이의 없이 통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절차를 규정화 한 것은 항상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했던 것이다.

<선원정규> 2권 청지사(請知事, 지사와 두수 임명) 장에는 "주지는 지사와 두수를 임용할 때는 미리 대중을 모아 놓고 지사와 두수 후보에 대하여 적부(適否) 여부를 세 차례 물어, 이의 없으면 비로소 이를 임용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사와 두수 소임을 맡게 되면 해당 소임자들은 모두 함께 방장에 나아가 주지화상에게 삼배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승당에 가서 대중들에게 인사하고 각각 "비구 00는 이번엔 00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고한다. 물론 이 자리는 6지사와 6두수가 대중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이므로 소임자들은 특별히 대중들에게 차를 공양한다. 그리고 또 별도로 각 소임자들이 내는 차(茶)도 있다. 이것을 "00특위다탕(00特爲茶湯)"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소임자들이 한턱 내는 것인데, 이것은 대중과의 화합을 위해서다. 주지 이하 중요 소임자들은 대중들을 위하여 자주 차를 공양했는데, 차를 마시면서 담소함으로써 총림은 화기에어깨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사와 두수 아래의 소직(小職)은 각 지사와 두수가 제청하면 임명했는데, 주지를 제외한 모든 소임의 임기는 1년 단위다. 소임을 맡은 지 1년이 되면 6

지사와 6두수 등 요직 소임자는 저녁 때(6지사는 저녁 때나 아침 공양 전(6두수는 공양 전)에 방장실로 들어가서 사임을 고하고 삼배(三拜)를 하고 물러간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후임 소임자에 대한 천거 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임하는 것을 하(下)지사, 하(下)두수라고 한다. 지사·두수직에서 내려온다는 뜻이다.

소임을 평가하는 제도도 있었다. 물론 각 소임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주지가 하지만 그 이전에 대중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말은 소임을 1년 동안 잘 수행한 결과 대중들의 입소문이나 평판이 좋으면 다시 맡기고, 평판이 좋지 못하면 더 이상 맡기지 않는다.

소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은 대중들이 편안하게 좌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중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이지 목에 힘을 주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요직을 받자하여 함부로 전횡하지 못하게 했다.

6지사와 6두수는 총림(선종사원)의 요직이다. 남송 이전 선원의 직제가 4지사 6두수였던 때에는 감원과 수좌가 각각 주지 다음의 제2인자였다. 그리고 6지사로 정형화 된 남송 이후에는 도사(都寺)·감사(監寺)·부사(副寺)·유나, 그리고 수좌·장주(지장)·지전·직세·지객 등 중요 직책을 맡은 이는 대부분 거쳐하는 당우나 방이 따로 있었는데, 수좌료(首座寮)·유나료(維那寮)·직세료·지객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사와 두수의 경우 좌선은 승당에서 대중들과 같이 했으나, 생활은 각 요사에서 따로 했다.

전임자들에 대한 예우도 있었는데, 지사와 두수 가운데서도 감원·도사·수좌 등 상위직을 역임한 이들은 따로 당우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부사(副寺) 이하의 지사 소임과 하위 두수직을 세 번 이상 맡았던 이는 전자료(前資寮)라는 당우에 독방을 배정하여 예우했다. 그러나 선종사원이 신설되던 초기 백장선사 시대에는 모든 소임자는 임기가 끝나면 승당으로 되돌아와서 대중과 함께 생활했다.

동상방 우측에 이판, 좌측에 사판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6지사와 6두수는 때로는 알력 관계에 있기도 했다. 어느 쪽이 더 상위직이나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때론 총림 운영 문제를 놓고 동서(지사와 서서(두수)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또 수행(두수)이 더 중요한가? 사무와 행정(지사)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을 것이다.

지사는 행정 쪽이고 두수는 수행 쪽이었는데, 외형적으로는 수좌를 비롯한 두수 쪽이 중심이지만 선원의 운영은 감원·서기 등 지사 쪽이 중심이었다. 외빈이나 지방 관아의 관리가 찾아 왔을 때는 감원이 주지를 대신하여 맞이했다.

그러나 주지 즉 방장이 부재중 일 때는 수좌가 주지를 대신하여 법문을 하고 선원을 통괄한다. 주지(방장)가 임직 등으로 결위(闕位)가 되었을 때는 6지사와 6두수 그리고 대중들이 회의하여 주지를 선출했는데, 감원보다는 수좌가 선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경우는 권력보다는 법력이 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장선사 시대 즉 초기 선원총림이 만들어질 때 소임의 숫자는 20여명에 불과했으나 후대로 가면서 점점 소임이 신설되었는데 특히 5산 10찰 제도가 생긴 남송(1127년) 이후에는 40여 개 이상으로 늘었다. 그만큼 후대로 갈수록 선종사원의 조직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정대에는 다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결제 때가 되면 소임을 확정하여 큰 방 벽에다가 방(榜)을 붙인다. 이것을 결제 방 혹은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하는데, 이 방(용상방)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들은 모두 용상(龍象) 같은 이들이라는 뜻이다. 용상방을 쓸 때는 우측에는 방장·조실·수좌·선덕·지객 등 이판 소임자들의 이름을 쓰고, 좌측에는 주지·삼지 등 사판 소임자들의 이름을 써서 붙인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선원총림의 직제

주지(방장)	
동서(東序)·6지사(六知事)	서서(西序)·6두수(六頭首)
도사(都寺, 감원, 서무)	수좌(首座, 교육지도)
감사(監寺, 업무감독)	서기(書記, 문서·문헌)
부사(副寺, 재무·회계)	지장(知藏, 장주, 정경각)
유나(維那, 규율)	지객(知客, 손님접반)
전좌(典座, 주방·창고)	지욕(知浴, 목욕 관리)
직세(直歲, 건물관리)	지전(知殿, 대웅전 관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합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열염,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렛배가 병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오심경,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신우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제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센터, 오심건강조, 요추배개등 자매포럼당)